

환경문화의 의미와 음악을 통한 환경 운동

이 기 영

(호서대학교)

1. 서 론

흔히 21세기를 환경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른다. 인류가 근세에 이룩한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로 크게 파괴된 자연환경과 인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류문명자체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어온 문명과 문명, 자연과 인류가 '서로 죽임'의 파괴적 경쟁관계에서 '서로 살림'의 창조적 공생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사람과 사람, 문명과 문명 간에는 물론이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간에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생태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환경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오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교육매체 중에서도 특히 청각을 이용한 음악은 교육효과가 큰 분야이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뿐만 아니라 기억을 오랜 동안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문화운동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어 검소한 생활로 자원의 총소비를 줄여 생태계를 회복시켜나가고, 문명간에 평화를 이루어 무한경쟁으로 파국을 향해 달리는 현 인류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가야 한다.

2. 현대문명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자연철학

인류 역사의 물질적 소산을 문명(civilization)이라 일컫는다면 문화(culture)는 주로 정신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유전이 아닌 학습을 통하여 획득된 일체의 사유나 행동을 말한다. 인류문명은 대체로 숲에서 발원한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문명권이 확대됨으로써 초래된 인위적인 숲의 파괴로 인해 문명이 쇠퇴해갔다. 세계를 정복해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시대에는 전함이나 전차 등의 전쟁장비나 도시의 토목 공사와 화려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나무 수요의 급증으로 이탈리아 반도, 스페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연안의 숲이 거의 황폐화되어갔다. 지중해에서 로마지배가 400년간이나 지속된 후 이 지역의 삼림은 거의 사라지고 기후와 식물도 점차 바뀌면서 로마문명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갔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과학기술혁명의 확대로 고도의 상호연관성을 갖는 지구네트워크와 지구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숲의 파괴현상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우는 62억 ha에 이르던 원시림이 산업화로 급속히 파괴되어 이제 겨우 15억 ha만이 남아있다. 반면 자동차, 공장의 증가와 현대식 주거방식의 과도한 냉난방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하면서 화석연료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공기 중의 탄산가스는 산업혁명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초래되어 지구촌 곳곳이 산불과 가뭄,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점점 녹아내려 서식처를 잃은 북극곰조차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과학의 발달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로 이제 인류문명의 절멸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20%에 불과했는데 그 사이에 과학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된 각종 화학물질의 축적으로 생태계가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로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폭이나 전자, 생화학 무기 등 현대무기도 지구 수십 개를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인간의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에 원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작금의 근시안적인 정치 행태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현대인류문명 자체가 생태계 파괴로 종말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양의 자연주의적 공동체 정신인 상생(서로 살림)의 뜻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상생의 이념은 경쟁적인 정복이나 지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서양의 물질문명과 달리 자연의 모든 만물이 다 함께 조화롭고 평등하게 어울려 살자는 유기체적 생태개념을 갖는 공동체정신이다. 따라서 상생은 수직적이고 소유론적인 서구의 가치관과는 대조적으로 평등과 조화 및 일치를 추구하며 자연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우주생명사상이다. 상생의 이념은 같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였으나 유물론적, 기계론적 사고로 생명 개체의 개성과 이들의 통합성을 무시한 결과 도태된 서구적 사회주의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이다. 우리는 상생의 사상을 물질주의로 경도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파괴적 가치관을 치유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발전시켜 21세기를 맞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문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두레나 계, 향약 등의 상생의 문화가 마을 단위로 꽃피워왔다. 일손이 딸릴 땐 품앗이로 서로를 도왔고 계를 통해 금전적으로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협동의 정신이 일상의 삶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또한 이는 사대부들의 통치철학인 선비정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에 구체화되어있다. 우리는 자연존중을 바탕으로 검약과 겸손을 인간윤리의 근본으로 삼은 자연철학의 핵심인 상생의 사상을 생태계 파괴로 미래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현대문명을 치유하고 물질로 경도된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대체하는 환경문화를 이끄는 핵심사상으로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

3. 음악을 통한 환경문화운동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속에서 가속되고 있는 현대 물질문명의 위험한 조류를 안전한 방향으로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위주의 물질적 가치관을 청산하고 윤리나 도덕을 비롯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을 비롯한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악은 인간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문화매체중의 하나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음향기기와 TV나 라디오 등의 손쉬운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과 장소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광고에서 노래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요즘처럼 중요하게 인식된 때도 없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고든 음악의 실체와 영향력을 파악해 음악의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여 환경 문화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엔 정신과 치료에 음악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가 심리요법과 겹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음악치료는 이미 응용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부터 우리 한민족은 춤과 음악을 즐기는 감성적인 민족이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등은 역사적인 가무 중심의 축제로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한민족 고유의 재래음악축제인 동맹은 본래 고구려가 북방계의 샤머니즘권에 속하는 까닭에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부여의 영고에서 연행된 전통적인 음악축제이다.

동맹은 고구려에서 매년 10월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고 가진 제천의식으로 동명(東明)이라고도 한다. 동맹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며 “고구려 나라 읍락(邑落)의 남녀들이 밤에 모여 서로 노래와 놀이를 즐기며 10월에 제천을 하면서 국중대회를 여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고 하였고, 후한서 동이전에도 “10월에 제천의식을 가지는데 밤에 남녀가 모여 창악(唱樂)을 하고 제사하기를 즐겼는데,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하더라”고 하였다. 제정일치 시대에는 부족민들을 원활하게 통치하고 부족민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음악이 제의적 행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무를 즐기는 풍속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 노래방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에서도 노래는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80년대에 절정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서 민중 가수 김민기씨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아침이슬’을 부르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힘을 얻어 독재자에 항거하였다. 사회 운동에서 노래는 운동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다. 중국의 공산화 과정을 그린 인도차이나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속한 유랑극단이 지주들의 부패상을 그린 노래를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퍼뜨리면서 공산혁명을 이끌어 간다. 유럽에서는 그룬트비가 노래를 통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 운동을 펼쳐 국민의 윤리성 확립과 화합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 월남전 반대 운동당시 ‘Where all the flowers gone’은 전장에서 사라져간 젊은이들을 애도하는 노래로 ‘Blowing in the wind’와 함께 반전운동을 절정으로 몰아갔다. 또한 흑인 인권운동에도 ‘We shall overcome’이라는 노래가 흑인들의 용기와 의지를 북돋우어 주었다. 비틀즈의 한 멤버였던 존 레논은 그의 평등사회

의 이상을 Imagine 이라는 노래에 실어 지구촌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이제는 세계적인 고전이 되었다. 시민정신이 투철한 독일인들은 교통이나 소방안전, 환경보호생활실천 사항들을 간단한 노래로 만들어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

여기 환경에 관한 노래 몇 곡을 소개한다. '지구를 위하여'는 환경파괴로 인해 절멸의 위협에 처해있는 지구의 실상을 깨닫고 지구를 다시 살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린 절약이 가족'은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물과 에너지 절약방법들을 한데 모아 노래로 만들어 보았다. '매연자동차'는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뽐내는 사람들 때문에 가로수가 죽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분당오리초등학교 2학년생인 박시은 양의 노랫말에 곡을 부친 노래이다. 이 노래들은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치관과 생활을 검소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www.singreen.com 에서 내려받기 가능).

4. 결론

이제 21세기를 맞은 우리의 화두는 환경과 문화이다. 그 동안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면 현 인류 문명은 얼마 못 가 절멸되리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류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검소한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사람-사람, 문명-문명은 물론이고 자연-인류사이에서 서로 죽임의 경쟁을 버리고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서로 살림의 상생의 환경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대중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매체중의 하나인 노래에 자연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실어 보급한다면 환경문화운동의 확산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노래는 우리에게 순수하고도 무한한 기쁨과 감동과 사고의 지속성을 준다. 수천 년 전 공자도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참고 문헌>

- 노래하는 환경교실, 이기영저, 현암사, 2003.7.
우리 마음에 나무를 심는 사람, 이기영저, 현암사, 2003.8.
영원한 고향(음반), 이기영, 신나라 뮤직, 2001.6.
나의 나무(음반), 이기영, 신나라 뮤직, 2002.4.
www.singreen.com 이기영 홈페이지, 2002. 6.

우린 절약이 가족

작사 이기영 작곡 이기영

우리가 절약하면
 환경이 좋아
 가족이 행복
 나라가 밝아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네가 절약하면
 환경이 좋아
 가족이 행복
 나라가 밝아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지수요(필수)로
 절약하면
 환경이 좋아
 가족이 행복
 나라가 밝아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꼭꼭
 절약하면
 환경이 좋아
 가족이 행복
 나라가 밝아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행복하면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꼭꼭
 절약하면
 환경이 좋아
 가족이 행복
 나라가 밝아
 모두가 웃어
 웃어주면
 모두가 행복

매연 자동차

작사: 박시은 작곡: 이기영

하얀 자동차가 검은연기름 노란자동차도 검은연기름
어머머(별짜이야) 예쁜척뵈내는 저끝준보세요
제뿔모습이 검은준도모르고 앞만보고달리네
아하길가의 가로수가시 들어가 네 매연때문에
감기몸살걸렸나 봐 내일아침엔 은행나무
D.S.
병문안을가야겠네

지구를 위하여

작사: 이기영, 작곡: 이기영, 임성수

Moderato
C

도시의 밤하늘 내은 이 별 빛보다 휘황히 타면서 우리
 앞엔 막알간 경고등 하나 들켜 지기 시작했네
 1. 그 땅 먼 강물은 어디에 그 푸르던 숲들도 그리워 옛 빛
 2. 은하수 별빛은 아 죄도 우리에게 고운 꿈 주지만 그
 지렁이엔 새 잎 새 잎의 아픈 빛이 들었어 미련도 두 팔이 나
 잃어 마나 더 많은 자연의 천 구들의 사랑 제야
 인간의 팔이 가진 욕망의 채워질 수 없을 까 하나
 밖에 있는 지구 우리 함께 살리라 자 아름
 다운 초록별 지구 무슨에게 전해 주세 하나

Chords: C, Dm, G7, A7, Gm, Am, F, D7, E7, II